충남교육연구소 농촌교육문화공동체 활동 사례
지역민의 삶에서 건져낸 문화예술교육

조성희

Ⅰ. 활동의 전개

가. 지역 연구소의 출범과 지역과의 만남

1) 충남교육연구소의 출범

충남교육연구소는 충남 지역 교수와 교사가 중심이 되어, 2000 년 9 월, '교육 및 교육주체 정체성 재정립, 연구실천 역량 조직 및 영속적 활동틀 마련, 지역단위 연구실천 센터 기능, 교육운동 연대 강화'라는 창립취지를 내걸고 창립된 민간 교육연구 실천 단체이다. 2002 년 2 월 충청남도교육청 허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으며, 2002 년 3 월에는 충청남도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다. 또한 2010 년에는 노동부로부터 교육문화분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삶의 교육, 상생의 교육'을 지향하는 충남교육연구소는 현장에서 교육실천의 전문성을 꾀해 왔지만 내용의 검증이나 장기적 전망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 교사들과, 현장의 실천성을 담은 연구활동이 요구되는 대학이나 연구 기관의 전문 연구자들이 상호 교류하며 보완하는 활동틀을 만들고, 지역 단위 교육운동 역량을 키워 지역현안에 대한 성찰 및 대안 제시라는 지향점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자 뜻을 모은 것이다.

연구소 사업의 지향점은 '삶의 교육, 상생의 교육', 그리고 '지역에 뿌리내리는 교육'이다. '아이들의 삶에 필요한, 자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존과 상생의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실천적 교육 연구'를 주요 사업 방향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마을과의 만남

충남교육연구소는 충남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의 옛 봉현분교를 연구소로 사용하고 있다. 충남교육연구소가 봉현분교 터에 자리잡은 것은 2001 년 3 월부터이다. 충남교육연구소가 봉현분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후에 충남교육연구소 회원이 된 공주지역 일부 교수와 교사들이 봉현분교가 폐교되던 무렵인 1999 년 3 월경에 있었던 폐교반대 투쟁에 관여한 인연이 크게 작용했다.

이후 1999 년 9 월 충남교육연구소가 창립되고 폐교를 사무실로 쓰기로 결정하면서 봉현분교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2000 년 10 월 공주시교육청과 임대계약을 맺고 2001 년 3 월부터는 연구소지기로 현 부소장인 이진철과 현 사무국장인 조성희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연구소내 사택에 들어와 살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봉현분교를 기반으로 한 연구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3) 교육을 통한 만남 - 봉현서당 개교

충남교육연구소가 봉현분교에 들어와 처음 시작한 일은 '봉현서당'을 연 것이다. 2001 년 1 월부터 당시 초대소장이던 권정안 교수가 공주시내에서 운영하던 '춘추서당' 교사들이 연구소 인근 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 1 회 한문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4) 봉현서당에서 봉현마을학교로

아이들의 배움을 통한 연구소와 마을의 만남은 곧 주민 교육과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이어졌다. 자녀가 마을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풍물교육 등에 대한 요구가 들어왔고, 2002 년에 충청남도청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에 지원하게 되었고, '농촌형 교육·문화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선정되어 400 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후 그 동안 자원봉사활동에만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방과후 공부방과 주민교실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2002 년 6 월 22 일 '봉현마을학교 개교식'을 엶으로써 '봉현서당'에서 '봉현마을교실'로 확대 개편하게 되었다.

5) 폐교를 활용한 다양한 주민지원 활동으로 만남의 장 확대

충남교육연구소는 마을학교 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행사로 주민과의 접점을 넓혀갔다. 그중에서도 2002 년부터 실시한 '은행나무축제'(2008 년도부터 농경문화교육한마당으로 개칭)는 연구소 인근 3 개 마을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첫장이 되었다. 은행나무축제는 2010 년 제 9 회를 맞았다. 2008 년 이후에는 3 개 마을중 하나인 봉현리의 5 도 2 촌사업과 맞물려 은행나무축제와 봉현리상여소리시연회를 묶어 봉현농경문화한마당이란 이름으로 개최되었으며, 1,000 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하는 등 지역의 교육공동체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 도시화의 영향으로 농촌 지역에도 공동체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다 인근 3 개 마을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던 학교가 폐교됨으로써 한 마을처럼 살던 세 개 마을도 점차 멀어져가고 있었다. 인근 마을을 하나로 다시 묶어 세울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한 것이 세 개 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 축제였다. 세 개 마을 대표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세 개 마을이 다시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프로그램은 세 개 마을 주민들의 삶에 배어 있는 농촌문화 속에서 찾아내었다. 특히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마을 노인들이 다양한 경험과 방법을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 어른들에게 잊혀져가는 전통 생활의 지혜를 배우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마을 어른들에게는 자긍심을, 배우고 즐기는 이에게는 우리 생활전통문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리로 삼았다. 농촌지역 속에서 프로그램을 찾고 프로그램화하는 작업은 이후 농촌교육문화공동체 활동의 기본 방향이 되었다.

나. 농촌교육문화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1) 주민들의 삶 속에서 발견한 농촌문화의 가치와 교육 프로그램화

마을 주민들이 연구소와의 사업에 주체적으로 결합하기 시작한 것은 2003 년도에 실시한 '역사문화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이다. 이 사업은 당시 문화관광부가 실시한

공모사업으로 봉현리는 '봉현농경문화마을'사업으로 역사문화마을로 선정되었다. 당시 공주시문화원의 제안으로 봉현리는 역사문화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본 경험이 없던 마을 지도자들은 이 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연구소의 도움을 요청했고, 연구소에서는 마을에 들어와 살고 있던 조성희 사무국장에게 이 일을 맡겼다. 조성희 사무국장은 봉현리역사문화마을만들기 추진위원이던 당시 공주시청 문화관광과 직원 이걸재 씨의 도움을 받아 '전통농법과 세시풍속 체험을 통한 농경문화 복원 - 봉현 농경문화 마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 계획서가 역사문화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마을과 함께하는 지속사업의 틀이 마련되었다. 봉현농경문화마을사업은 전통 논농사와 세시풍속에 맞는 농촌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주 사업내용이었다. 프로그램 기획과정에서, 서울 출신으로 농촌과 농사에 대해 문외한이던 조성희 사무국장은 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논농사 및 세시풍속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마을 노인들로부터 얻었다. 마을 노인에 대한 가치의 재발견이었다. 또한 한 마을 속에 숨겨진 전통문화와 농경문화를 끄집어 올려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마을과 함께한 농경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지역 학교와의 연대 또한 가능하게 했다. 모내기에서 김매기, 추수, 타작에 이르기까지 지역 초중학생들이 함께했다. 그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은 하나둘 기억을 되살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했고 이는 충남교육연구소의 주말학교와 계절학교, 농촌문화체험학습 등 농촌의 가치를 살린 농촌형 교육 프로그램의 토대가 됐다. 또한 이후 마을 노인들은 농촌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후 연구소는 농촌문화와 자연을 주제로 한 교육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농촌마을 주민과 농촌의 교육을 담당한 교사들이 자신들이 터를 내린 곳의 가치를 발견해가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과 주민들, 도시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주 활동방식이었다. 각 프로그램에서 마을주민들은 전통문화 프로그램의 기획자이자 강사, 진행자로 충남교육연구소 회원인 선생님들과 함께 주체적으로 결합되었다. 또한 모든 프로그램에는 인근 농촌마을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작업은 농촌지역의 교사들에게는 농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농촌아이들의 주변환경에서 활동 프로그램을 찾아 쉽고 효과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농촌지역 교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또한 교육과 문화의 소외지인 농촌에서 자연친화적인 새로운 형태의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농촌지역문화 개발에도 한몫을 해나가기 시작했다.

2) 적극적인 지원사업 유치와 농촌교육문화공동체 활동 활성화

충남교육연구소는 2003 년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폐교를 활용한 농촌 마을학교 및 문화 공동체 운영 사업'이 선정되어 7 명의 교육인력과 3 명의 마을주민(농촌문화체험학습담당)을 고용하게 되었다. 노동부의 인력지원으로 연구소의 각종 사업진행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때의 사업목표는 다음과 같다.

> 농촌 교육의 소외와 위축의 상징인 폐교를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써 활용함으로써 폐교로 인한 농촌 지역민들의 상실감을 없애고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정보마인드와 교육·문화에 대한 비전을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농촌형 교육·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교육 : 낙후된 교육환경으로 인해 소외감이 깊은 농촌지역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인터넷 교육, 서당교육을 통한 예절교육, 독서지도, 학부모교실 등의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2) 문화 : 사라져가는 농촌의 전통문화를 재조명하는 전통문화체험학교 활동을 통해 농촌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촌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를 높인다.

(3) 공동체 : 민간단체와 지역주민과의 건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마을과 민간단체가 함께 낙후된 농촌 교육·문화 환경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지역 주민의 손으로 일궈낸 농촌교육살리기의 한 모범을 창출하고자 한다(충남교육연구소 2003 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계획서).

교육을 통한 주민들과의 만남이 활발해지자 주민들의 요구 또한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연구소 주관 주민 및 학생 교육뿐 아니라 남천리 부녀회의 건강체조, 동향체육회의 작목반 교육, 주민풍물패교육 등 주민들의 교육 소모임에 대한 장소 및 운영 지원도 시작되었다. 아울러 인근 마을의 홍보물, 서류, 사업기획 등에 대한 행정적 실무 지원 요청도 늘어나면서 연구소가 인근 마을의 교육의 장이자 정보센터 등의 역할을 더하게 되었다.

3) 지역과 지역주민의 잠재능력개발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농촌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학생 교육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봉현리 노인회와의 관계가 긴밀해졌다. 노인회장단이 중심이 되어 연구소의 농촌문화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 것이다.

노인회원을 중심으로 한 마을주민들의 연구소 교육활동 참여는 이후 사회문화예술교육, 주말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연구소의 학생활동이 여타 청소년관련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갖는 데 크게 기여했다. 노인회원들 또한 자신들의 존재가치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함께 농촌문화의 가치를 새로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자각은 이후 봉현리 5 도 2 촌마을만들기사업 등 마을 사업의 방향잡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노인회와의 만남은 마을과 연구소의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들 교육과 청장년층인 그들 부모와의 만남은 마을학교 등을 통해 이미 이루어져 왔지만 마을 주민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노인들과의 접점은 문해교육외엔 찾기 어려웠는데 마을 노인들이 학생교육활동에 적극 결합하면서 오히려 연구소 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을 통해 조손가정을 꾸리고 있는 노인분들과의 교육상담 및 교육지원 활동도 자연스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농촌문화를 주제로 한 계절학교, 농촌문화체험학습 등에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농촌문화의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졌고, 마을에서도 농촌의 발전은 도시 따라잡기가 아니라 농촌마을 고유의 전통을 살리는 데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2003 년 역사문화마을만들기 사업 중 하나로 '농경문화자료관'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면서 각각의 집 창고와 텃밭 등에 내동댕이쳐져 있던 각종 생활도구 및 농사도구들이 자료관으로 모아지게 되었고 이때 만든 자료관은 이후 마을의 상징이자 긍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연구소를 찾는 많은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자료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시기는 농촌교육문화공동체 활동내용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농촌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해는 농촌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하였고, 이를 교육 프로그램화하여 학생 교육활동에 적용하게 되면서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교육활동의 장을 열기 시작했다. 이러한 교육활동에 주민들이 프로그램 기획 및 강사 등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일방적인 농촌교육문화공동체 활동의 수혜자에서 활동주체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주민들이 농촌교육문화공동체 활동이 마을과 자신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

다. 농촌문화를 통한 지역과 학교 잇기

1) 농촌청소년문화학교를 통한 활동 영역 확대

2006 년도부터는 기존의 마을학교를 확대해 '농촌청소년문화학교 느티나무'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농촌 청소년 위한 문화학교 운영' 사업은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선정되어 2006 년 3 월부터 3 년간 10 명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2008 년 12 월 공주시청과 연계한 사업으로 다시 1 년 간 지원을 확보하였다.

농촌청소년문화학교 느티나무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마을 방과후 공부방과 방학중 계절학교, 주민교실 프로그램으로 폭이 제한되어 있던 데서 벗어나 기존의 프로그램에 더해 주말학교, 방과후교실 강사파견, 주민현안사업 및 복지사업 지원 등으로 프로그램이 다양화하였다. 이 활동은 연구소의 농촌교육활동 활성화 방향과 이후 연구소가 지역과 학교와 함께 더욱 확대된 농촌교육문화공동체 활동을 하는 바탕이 되었다. 느티나무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 안과 밖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구조로 이뤄진다는 데 있다. 연구소 회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초중고 교사들이 느티나무의 주말학교, 계절학교 프로그램 기획을 함께하고, 반대로 느티나무 교사나 지역 주민들은 지역 학교의 특별활동,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에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과 배움의 장을 제공하며, 지역의 교육력을 강화시켜가고 있다.

2) 지역에서 배워 학교에서 실천

이와 함께 농촌교육에 관한 연구활동도 더욱 활발해졌다. 그 중에서도 2002 년도부터 운영되어온 계절학교 참여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청소년문화연구팀은 2006 년과 2007 년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교사자율연구모임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그 동안의 농촌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토대로 한 『지역문화와 자연생태를 결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2006 년)『학급운영 적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2007 년) 이라는 2 권의 연구보고서를 냈으며,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전통문화체험반』(충남도교육청 수탁연구, 2007)을 펴내기도 했다.

청소년문화연구팀의 이 같은 프로그램 개발 연구활동은 2002 년도부터 운영해온 계절학교 활동이 바탕이 된 것이다. 충남교육연구소 계절학교의 특성은 농촌문화와 농촌의 자연환경에서 활동 주제와 소재를 찾는다는 데 있는데, 이러한 교육활동의 성과가 모여 자연히 농촌 주민의 삶과 자연환경 속에서 찾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했던 것이다. 청소년문화연구팀인 현장교사들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을 강사로

짚풀교사연수를 실시하기도 했는데 교사들이 지역의 문화를 지역민들에게 배우는 활동은 교사들에게는 농촌문화의 가치를 살린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게 하고 평소에 배우기 힘든 다양한 기능을 익혀 이를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속에 내재해 있는 농촌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처음에는 가르치는 데 익숙하지 않아 아무 말씀없이 시연하는 데 몰두해 혼자 진도를 나가시던(?) 어르신들의 강의법이 몰라보게 발전한 것은 교사연수를 통해서이다. 마침 교사연수가 있던 날 학생연수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할아버지들께 먼저 새끼꼬기를 익힌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꼼꼼히 방법을 일러주고 틀린 것을 잡아주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자신들의 강의법에 부족한 어떤 것을 발견하신 것이다. 교사들은 어르신들께 전통문화를 배우고 어르신들은 또 교사들에게 강의법을 배우는 상생의 교육효과가 일어났다고 할까! 배우는 이와 가르치는 이가 따로 없다(조성희, 2007 년).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은 다시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활동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농촌의 가치를 살린 교육의 소중함과 이를 통해 농촌의 특성을 살린 농촌교육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지역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실천하는 활동이 되고 있는 것이다.

3) 사업 실행의 방안으로서의 공모사업 수행과 한계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10 명의 상근직원이 생기면서 2006 년을 기점으로 외부 지원사업의 수행 폭도 넓어졌다. 지원사업은 대부분 사업공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재정형편에 따른 것이다. 연구소 재정은 회원회비로 충당되는데 회원회비만으로는 노동부 지원을 받지 않는 1 명의 상근자(사무국장)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를 충당하기도 빠듯했다. 그런 가운데 인력은 있되 사업비는 없는, 사업비는 없되 해야 할 또 하고픈 사업은 많은 실정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각종 공모사업에 지원하게 되었으며, 이 사업들은 대부분 농촌교육문화공동체 활동에 관한 것이었다.

2006~2010 년도에 수행한 지원사업(표 1 참조)의 대부분은 청소년문화학교 느티나무 사업과 관련된 것들인데, 연구소가 미리 계획안 사업계획안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사업을 찾아 신청함으로써 자칫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하고자 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활동증진사업 선정은 주말학교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진로교육과 농촌문화를 결합한 '청소년 법고창신 한마당'이 그것인데 이 사업은 학교를 찾아가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후 '찾아가는 교육활동'의 토대가 되었으며,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의 작은 배움터 사업(농촌청소년진로탐험대)은 2008 년도에 지역 네트워크 사업으로 발전하는 모태가 되었다.

<표 1> 2006~2009 년도 문화예술교육 관련 외부 지원사업

2006 년도	
사업명	**지원기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 농촌 청소년 문화학교 운영	노동부

농촌형교육문화공동체운영	충청남도청
도농간문화잇기	충청남도청
마을축제	공주시청
충효예교실(동,하계)	공주시청
사회취약계층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문광부, 충남도청, 공주시청
공주대 사대생 농촌문화체험	공주대
농촌문화체험학습	대산농촌문화재단
문학나눔, 문화바우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 년도

사업명	지원기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 농촌 청소년 문화학교 운영	노동부
청소년활동증진사업	청소년위원회
새터민예술교육사업 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농촌형교육문화공동체운영	충남도청
도농간문화잇기	충남도청
마을축제	공주시청
충효예교실(동,하계)	공주시청
학교폭력해결을 위한 전통인형극	폭력없는사회만들기충남본부
사회취약계층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문광부, 충남도청, 공주시청
농촌문화체험학습	대산농촌문화재단

2008 년도

사업명	지원기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 농촌 청소년 문화학교 운영	노동부
고른기회지역네트워크사업-충남농촌교육희망찾기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사회취약계층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우리있을때배워	문광부, 충남도청, 공주시청
농촌형교육문화공동체운영	충남도청
도농간문화잇기	충남도청
마을축제	공주시청
충효예교실(동,하계)	공주시청
우리마을보물찾기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2009 년도

사업명	지원기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 농촌 청소년 문화학교 운영	노동부
고른기회지역네트워크사업-충남농촌교육희망찾기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생활문화공동체시범마을사업-농촌문화희망찾기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있을 때 배워 - 노인문화예술교육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농촌형교육문화공동체운영	충남도청
도농간문화잇기	충남도청
마을축제	공주시청
충효예교실(동,하계)	공주시청

2010 년도	
사업명	**지원기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 농촌 청소년 문화학교 운영	노동부
고른기회지역네트워크사업-충남농촌교육희망찾기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생활문화공동체시범마을사업-농촌문화희망찾기	문화체육관광부
도농간문화잇기	충남도청
마을축제	공주시청
충효예교실(동,하계)	공주시청

한편 문화관광부와 충청남도청, 공주시청이 공동 지원하는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선정은 마을주민들에게 농촌문화를 전승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니 마을 어르신들의 삶 속에는 무궁한 이야깃거리와 배움거리가 가득했다. 그러나 정작 그 분들은 당신들의 삶 속에 그대로 배어 있는 다양한 생활방식들이 배움거리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계셨다. 그것들을 체험학습으로 끄집어냈더니 정말 무궁무진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기 시작했다(조성희, 2007).

농경문화계승 교실은 2003 년에 연구소가 자리한 봉현리가 당시 문화관광부가 공모한 역사문화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봉현농경문화마을'로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농경문화체험학습을 하며 60 대 이상 노인들을 제외하고는 짚공예, 노동요 등 농경문화를 이어갈 후계자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잇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70~80 대 마을 노인회 임원들을 강사로 모셔 마을 주민들이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2006 년도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모한 소외계층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 '봉현 논배미 문화교실'이 선정되어 문화잇기 교육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는 노인들이 강사가 되어 지역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짚공예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졌다. 2008~2009 년도 프로그램은 "우리 있을 때 배워"로 지역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역의 문화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으로, 60 대 노인들조차 가물가물해져가는 농촌문화를 전승하는 계기로 삼아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의 문화잇기가 마을 주민들 간에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공모사업은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재정구조는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신과 이로 인한 상근자들의 전망부재를 불러오고 이는 자칫 사업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4) 마을현안사업에 마을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2008 년도에는 충남교육연구소가 위치한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가 공주시 5 도 2 촌시범마을로 선정되었다. 연구소는 지난 2003 년에도 봉현리역사문화마을만들기사업에 기획부터 운영까지 참여한 적이 있다. 그러나 2003 년 당시에는 마을의 일원이나 주체로서의 참여라기보다는 마을을 지원하는 측면이 강했다. 마을 또한 일부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결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마을 주민 전체의 사업으로 인식되지 못한 채 진행이 되어 자체 농경유물자료관 마련, 농촌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마을 인지도 제고란 사업의 성과와는 별개로 마을공동체 강화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공주시 5 도 2 촌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 재생이란 측면에서 마을주민 전체의 현안사업으로 받아들여졌고 마을은 연구소에 기획 및 홍보,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지원을 요청해왔다. 연구소는 사무국을 중심으로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사업계획서 작성, 봉현농경문화교육한마당 사업기획 및 홍보, 운영까지 사업 전반에 참여했다.

그 동안의 연구소와 마을간의 만남은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연구소에서 먼저 사업을 기획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참여시키는 형식이었다. 한 예로 2010 년도에 제 9 회를 맞이하는 은행나무축제(2008 년에는 봉현농경문화교육한마당으로 운영)도 마을주민들과 함께 협의회를 만들어 모든 과정을 논의해왔음에도 주민사업이라기보다는 연구소 사업으로 인식하는 주민들이 더 많았다. 그러나 마을 현안사업을 진행하는 데 연구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현안사업뿐 아니라 그 동안 연구소가 진행해오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농촌마을사업에 대한 주민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농촌마을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모범사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기도 하고, 장기적인 마을발전 계획에 대해 의견을 묻는 일도 많아졌다. 또한 그 동안 연구소 주도로 해오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마을 현안사업과 연계해 풀어보려는 노력도 더해졌다. 또한 마을현안사업 공동운영을 통해 공주시나 우성면사무소나 우성농협, 우성면 소재 초중학교와의 관계 또한 긴밀해졌다. 충남교육연구소는 물론 우성면에만 한정된 활동을 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우성면에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우성면 내에서의 농촌교육문화공동체 활동의 활성화는 그 의미가 크다.

5) 농촌교육문화공동체 활동의 양적, 질적 변화

2008 년부터 충남교육연구소 농촌교육문화공동체 활동의 양적, 질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첫째, 농촌교육문화공동체의 활동주체의 변화이다. 그 동안 농촌교육문화공동체의 활동주체는 충남교육연구소 회원, 그 중에서도 운영위원들이 중심이었으며, 사업에 대한 인식도 '충남교육연구소의 농촌교육문화공동체'라는 인식이 강했다. 사업내용상 농촌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많았으나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농촌교육문화공동체의 주체라는 인식은 미약하였다. 그러나 마을의 현안사업과 농촌교육문화공동체 활동이 결합함으로써 연대의 힘과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고, 주민들의 삶속에서 찾아낸 프로그램을 마을 주민간 상호 교육형태로 진행함으로써 프로그램 기획에서 운영, 그리고 사업의 목적이 마을 주민들의 삶과 긴밀히 연결됨으로써 교육을 통한 마을의 변화와 주민 삶의 변화에 대한 기대 속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또한 청소년문화학교 느티나무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인적 자원들이 결합하게 되고 또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충남교육연구소 외부 교육인력들이 농촌교육문화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시기 가장 주목할 점은 공식적인 교육 네트워크가 결성되었다는 점이다. 충남교육연구소를 대표기관으로 전문 교육연구기관, 학교, 지역 내 공부방, 과학과 문화예술 전문가 단체 등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가 함께 지역의 교육력을 향상시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사업을 공동 운영하게 되었다.

둘째, 사업의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연구소 인근 주민들의 교육외에 학생들의 학교 밖 교육활동 위주였던 것에서 방과후 교육활동, 계발활동, 특별활동 등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활동과 강사지원활동이 학교 안팎에서 실시되었고, 농촌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사연수 및 연구작업도 연구소 밖 전문인력과의 결합으로 활기를 띠게 되었다. 무엇보다 주민 교육활동이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되어 지역민들의 교육역량과 문화역량 강화연수로 이어졌고, 5 도 2 촌사업 등 마을 현안사업에 공동 참여하게 되어 교육을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반이 형성되었다.

라. 생활문화공동체로의 발전

충남교육연구소와 봉현리에서는 2009 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봉현리 주민과 충남교육연구소가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문화예술교육활동은 주민들과 지역 민간단체 모두에게 지역의 가치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활동이 주로 일회적인 지원사업에 힘입어 진행되어와 각 활동이 단속적으로 그치거나 참여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을 낳기도 했다. 이에 이번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을 통해서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문화역량을 끌어올리고 이를 강사자원화함으로써 주민 스스로의 동력에 의해 운영되는 생활문화공동체의 인적 역량 키우기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영화상영 및 마을 다큐 제작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록화하는 작업을 시작함으로써 생활문화공동체 구성원들 각자의 삶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 것이다.

<표 2> 생활문화공동체 사업내용

봉현 생활문화공동체 문화 사랑방 운영

- ○ 문화사랑방 개설
- ○ 문화사랑방 동아리 운영 : 풍물동아리, 연극동아리, 짚공예동아리
- ○ 문화사랑방 동아리 발표회

봉현리 문화발전소 운영

-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사진영상교실(월 2 회)
- ○ 봉현리 , 그리고 봉현 사람들 다큐 제작(다큐 1 편 제작)
- ○ 봉현리 달밤 영화관 운영(월 1 회)

마을주민들이 어떤 한 주제로 동아리를 형성해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 사업초기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이자 어려웠던 것이 바로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의 의미를 이해시키는 일이었다. 공동체를 바탕으로 마을이 운영되어왔고 또 지금도 도시에 비해 공동체가

상대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농촌임에도 주민들은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문화' 역시 마찬가지다. 오랫동안 함께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마을의 전통을 유지해왔음에도 말이나 개념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온 것이 아니기에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말이나 글로 형식적으로 다가서는 것은 주민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다.

그렇기에 사업 설명도 주민들이 이런 저런 활동을 하면 어떤 점이 마을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즐거움이 덧붙여질지 또 아이들 교육에는 어떤 이로움이 있을지 직접 그동안의 활동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나갔다.

사업시행 시점이 농번기와 맞물려 아이들 위주로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어른들에게는 지속적인 홍보를 하는 기간으로 잡아 운영했다.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대동계장, 5 도 2 촌추진위원장, 새마을지도자 등 마을협의체의 구심이 되는 분들을 모시고 지속적으로 사업설명을 겸한 회의를 가지며 협조를 구했고 마을의 화합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끌어내었다. 그 결과 풍물동아리는 부녀회원들이, 짚공예동아리는 노인회원들이 중심에 서서 동아리를 형성하게 되었고, 동아리 운영이 탄력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참여인원도 늘어나게 되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라면 '함께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는 것과 그 즐거움이 원동력이 되어 또 다른 욕구와 기대가 생겨난다는 점이다. 모이기는 하되 잡담으로 소일하던 무기력한 만남에서 벗어나 공동의 목표(마을 풍물단 구성, 짚공예전수, 마을 아동연극단 구성, 마을문화의 활성화 등)를 세우고 함께 발전해나가는 속에 새로운 배움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가고 있는것이다.

서로 갈등관계에 있던 사람도 소리를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알게 되고(풍물동아리), 가물가물해져가던 옛 생활모습과 전통을 여럿이 기억을 모아 되살려내면서(짚공예동아리) 마을 주민들의 생활이 조금씩 활기를 더해가고 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모두 한데 모여 같은 영화를 보고 공동의 추억을 쌓아가는 것도 주민들에게 쏠쏠한 재미가 되어가고 있다(봉현달밤영화관).

마을 아이들이 만든 영화를 함께 보고, 때로는 영화의 찬조출연자가 되거나 마을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어 마을의 모습을 기록화하는 데 힘을 실어주며 봉현리 주민들은 생기를 찾아가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문화를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 집단, 지역의 학교, 도시마을과의 연계도 활발해졌다. 이러한 연계를 기반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전문집단과의 연계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농촌에서 자칫 부족하기 쉬운 강사자원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연계활동은 봉현리 생활문화공동체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이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주민들이 문화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짚공예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이에 참여하는 노인회원들의 강사역량도 커져가고 있다. 또한 다양한 활동은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로도 이어지고 있다. 전통발을 만들며 이를 아이들 교육활동으로 재구성하게 되었고, 충남교육연구소가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공주교육청과 함께하는 2010 년도 보육교실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에도 노인강사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반영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마을의 농촌문화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어 5 도 2 촌사업 등 마을사업의 활성화와 마을의 수익창출에도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봉현달밤영화관과 다큐촬영을 통해서는 미디어문화산업에 대한 이해와 친숙함을 더해 미디어 문화의 새로운 소비주체로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Ⅱ. 분석 및 논의

가. 농촌교육문화공동체 활동의 의미

1) 삶을 통해 배우는 문화예술교육과 농촌교육문화공동체 활동

2001 년 봉현리 한 폐교에 둥지를 튼 충남교육연구소는 이후 9 년간 봉현리 주민들과 다양한 교육문화공동체 활동을 실시해왔다. 농촌교육문화공동체 활동은 봉현 마을학교를 여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마을 아이들의 방과후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이 활동을 통해 학부모인 마을 어른들과의 소통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공부방 아이들의 상당수가 조손가정의 아이들이어서 마을 어르신들과의 관계 또한 긴밀해졌고 그 분들을 위한 활동도 모색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낮시간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한글, 풍물 등을 가르치는 주민교실을 열어 함께 배우는 장을 만들고 이런 만남이 토대가 되어 마을과 함께 '역사문화마을만들기사업' '농촌문화체험학교'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발견한 것이 바로 '지역민들의 삶 속에 무궁무진하게 내재되어 있는 전통문화의 가치'였다.

2) 농촌마을의 공동체 문화 복원과 지역민들의 자긍심 높이기

우리가 해온 활동은 소박하다. 그저 농촌에서 순박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알고 계신, 몸에 익은 것들의 가치를 끄집어내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름난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도 없고, 내세울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함께 한 이들은 어르신들과 함께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소박한 농촌문화를 몸으로 체험하며, 그속에 자연이 담겨 있고 공동체 정신이 스며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닫힌 마음을 열고 남과 소통하는 단초가 되어준다. 도농격차로 인해 주눅들고, 도시 지역민들에게 근거없는 열등감을 느끼기 쉬운 농촌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을 통한 다가섬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으며, 더 나은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실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쏟으려 한다.

그리고 농촌을 되살리는 관건은 바로 지역내 교육·문화 환경 개선, 그 중에서도 농촌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여가, 문화 체험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농촌생활의 잠재된 가능성을 지역 주민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농촌마을 주민들과 함께 생활문화공동체를 구성해 계속 그 방법을 탐색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나. 농촌교육문화공동체 활동 목적

1) “문화가 살아야 농촌도 산다.” - 폐교를 통한 농촌교육문화공동체 활성화

농촌을 되살리는 관건은 바로 농촌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여가, 문화체험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농촌생활의 잠재된 가능성을 지역 주민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농촌 교육문화 소외의 상징인 폐교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그 방법을 탐색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2) 농촌문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자 - 주민생활문화공동체 기반 형성

3) 우리 농촌문화와 공동체 정신의 맥을 잇는다 - 농촌문화가치발견

마을 어른들께 잊혀져가는 농촌 생활의 지혜를 배우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마을 어른들께는 자긍심을, 배우는 이에게는 우리 농촌문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다. 활동 전개의 중요 요소

1) 소통의 자세

가장 가까운 곳에서의 실천에 대한 자각과 마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인 동시에 충남교육연구소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인 '교육'을 통한 지역과의 만남은 농촌교육문화공동체의 첫출발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지역에 대한 이해나 준비 없이 "이것이 좋은 것이니 따라오라"는 방식의 활동은 성공하기 힘들다. 지역민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토대로 그들의 요구와 기대 답하는 소통의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업보다는 신뢰와 나눔에 우선한 충남교육연구소의 자세는 소박하고 더디지만 단단히 뿌리를 내리게 한 배경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2) 참여자들의 주체의식

농촌교육문화공동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의 주체의식이다. 각 활동주체들이 공동체 활동에 대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으며 동의하는가, 공동체 활동을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느냐의 여부에 따라 농촌교육문화공동체의 건강성과 지속성이 유지된다. 이런 측면에서 충남교육연구소 농촌교육문화공동체 활동을 통한 충남교육연구소 회원과 지역민, 학생의 변화는 눈여겨 볼 만하다. ‘농촌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통해 '농촌교육 활성화는 농촌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이해와 연계가 바탕이 되어야만 한다'는 자각을 하게 되면서 충남교육연구소 회원들은 지역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었고 농촌교육문화공동체 활동내용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3) 농촌의 가치 재발견

농촌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해는 농촌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하였고, 이를 교육 프로그램화하여 학생 교육활동에 적용하게 되면서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교육활동의 장을 열기 시작했고 주민들 또한 농촌교육문화공동체 활동이 마을과 자신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를 갖기 시작한 것이다.

4) 지역 교육 사업에 대한 논의와 해결의 장 마련

지역에 대한 이해는 농촌교육문화공동체 활동에 다양성과 건강성을 부여하고 사업의 질적, 양적 확대를 가져왔다. 봉현마을학교는 농촌청소년문화학교 느티나무로 확대 개편되었고, 인근 마을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던 사업은 충남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청소년문화학교 느티나무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인적 자원들이 결합하게 되고 또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충남교육연구소 외부 교육인력들이 농촌교육문화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 공식적인 교육 네트워크가 결성되었다. 이같은 네트워크 결성은 지역 교육 사업에 대한 논의와 공동 해결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농촌교육문화공동체의 지향점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농촌교육문화공동체 활동은 농촌 지역에 대한 이해와 요구에 답하는 방식, 지역민들의 삶에 전면적으로 다가서는 방식, 아이들의 돌봄과 배움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교육력 향상에도 기여하는 방식, 학교와 지역을 매개하고 상호 소통하는 방식이 되어야 함을 충남교육연구소 농촌교육문화공동체 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촌교육문화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믿음 또한 중요하다. 교육활동의 성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농촌교육문화공동체 활동에서도 기다림은 중요하다.

라. 활동 추진 동력

충남교육연구소 활동의 추진 동력은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구소 회원 교수 및 교사들의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활용했다는 점이다. 인적 자원이 부족한 농촌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다양한 교육 역량과 진정성을 가진 교사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만큼 해야 할 역할이 많다는 것이기도 하다. 농촌의 교육문제를 누구보다 많이 겪어온 '농촌'의 교사들이기에 농촌 문제의 해결은 곧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는 주체의식이 다양한 형태의 참여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 교육 활동을 통한 다양한 교육 연대를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교육을 통한 지역민과의 만남, 학교와의 연계활동, 대학의 연구역량과의 결합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활동이 교육을 통한 지역의 재생과 교육 네트워크라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농촌 주민들의 삶과 지역 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농촌교육 문제를 풀어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갔다는 점이다. 지역의 일원으로 지역의 교육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는 동력인 것이다.

넷째,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정부나 기업 등의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 나간 적극성이다.

다섯째, 지역의 문화 속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여섯째, 폐교 공간을 지역민들의 교육 활동 장소로 개방하고 공간의 이점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행해 나갔다는 점이다.

마. 참여자별 기대효과

1) 지역 주민들

잊혀져가던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노인회를 중심으로 농촌문화체험의 강사 및 프로그램 기획자로 함께 함으로써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마인드 형성 및 지역 문화를 일구는 역량을 강화해왔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고 농촌문화의 가능성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문화를 매개로 한 지역 농촌교육문화공동체의 재생 및 활성화의 동력이 되고 있다.

2) 지역 민간단체(충남교육연구소)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에 뿌리내린 민간 연구소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농촌교육문화지킴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3) 참여 청소년 및 가족

다양한 교육문화 활동의 경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으며, 농촌 지역문화와 자연생태의 소중함을 인식하기 되어 지역에 대한 자존감을 갖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바. 향후 공동체 활성화 전략 : 참여 주체 형성을 위한 방안

1) 주민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의식고양과 자발적 실천단위 구성의 필요성

농촌교육문화공동체 사업의 주체는 주민들이며, 그들의 주체적 역량이야 말로이야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역동성을 위한 전제이다.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민들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문화와 전통음식만들기 등 향토문화에 대한 주민들 스스로의 자긍심과 가치부여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주민강좌와 협의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봉현리는 쑥불동화제, 달공소리(상여소리), 자리개질 소리, 보리풍년 윷놀리기 등 마을 특유의 전통문화가 비교적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주민들 일상 속에서 행해지고 있으나 대부분 60 대 이상 노인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이를 이으려는 청장년층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화가 계속 계승, 재생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보유자와 계승자간의 문화전승 고리잇기 장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주민 주도의 농촌교육문화공동체 사업 시행을 위한 방안

모든 사업은 주민의 자발성(주민 총회의 합의)에 기초해 추진하며, 주민의 생활상의 요구와 연계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목적사업의 추진에 주민을 동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 생활에 목적사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 계승 사업과 생활 향상 사업을 위해 마을 주민과 충남교육연구소 간의 상설협의체인 봉현리교육문화공동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협의회는 문화계승 사업과 생활향상 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공동의 발전방안을 지속적이고 힘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양병찬(2008). 농촌 학교와 지역의 협동을 통한 교육공동체 형성. 충남농촌교육희망찾기네트워크 발족식 자료집

양병찬(2008). 한국의 지역교육공동체 운동의 전개 - 충남교육연구소의 농촌교육문화공동체 실천을 중심으로. 북해도대학 교육학부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이진철 ; 조성희(2008). 교육안전망사례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조성희(2005). 실천적인 지역문제를 연구 고민하는 충남교육연구소. 우리교육 4 월호.

조성희(2007). 학교와 지역사회 소통 통한 농촌교육 희망찾기. 우리교육 1 월호

충남교육연구소 사업계획서 및 내부문건(2000~2008)